



[산업] LG전자 더 촘촘하고 간간하게 가전제품 위생 '사할' 06

[기업소식] 구자열 LS회장 '지니어워즈' 수상 상금 전액 기부 L4



## 눈으로 맛으로 한모금 靑 공식만찬 수제맥주 “카~ 이름 값 하네!”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세브브로이 '강서맥주'

지역 이름 딴 최초 맥주... 수제맥주 붐 선도  
2017년 청와대 만찬주로 선정... 관심 집중

아메리칸 페일에일, 한국식으로 재해석  
호불호 없는 맛... 수제맥주 입문자에 추천  
신규 수제맥주·무알코올 등 다양한 시도



양평 양조장

/세브브로이

#### ◆서울 강서 지역의 스카이라인 담아

'강서맥주'는 세브브로이 본사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도 떠올리게 할뿐더러 캔 디자인도 강서 지역의 야간 풍경에서 착안했다.

랜드마크인 김포공항 관제탑 등 스카이라인과 한강의 야경 컬러로 디자인해 지역 소비자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국내에선 업계 최초의 지역명 맥주란 타이틀을 얻었다. 강서 외에도 한강, 서울, 양평 등 다양한 지역명을 딴 수제맥주를 출시하며 지역명 맥주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강서맥주는 아메리칸 페일에일(APA)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마일드 에일 타입의 수제맥주다. 많은 양의 홉을 사용해 리치, 망고 등의 열대과일 향과 은은한 꽃향기가 특징으로 수제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선 수제맥주의 클래식으로 통한다.

세브브로이 담당자는 "강서맥주는 특히 호불호 없이 마실 수 있는 맛으로, 수제맥주 입문자들도 마시기 좋은 수제맥주"라고 소개했다.

#### ◆수제맥주 전성시대 열다

강서맥주가 전 국민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2017년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해인 2017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 호프미팅 공식 만찬주로 선정된 것. 당시 중소기업이자 수제맥주 브랜드가 선정되어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강서맥주는 품질 사태를 빚으며, 업계에서 수제맥주 시장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받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수제맥주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세브브로이의 강서 캔맥주 500ml는 개발 단계부터 선행 고객의 감각에 맞춰 선명도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업계 최초로 캔뚜껑고리(Tap)에 붉은 장미색을 도입했다. 붉은장미색 캔뚜껑고리는 일명 강서Ros

e Tap으로도 불린다. 수제맥주를 선호하는 2537세대들이 눈으로 감상하고 맛과 향으로 공감하는 강서 Rose Tap 수제맥주로 기억되고자 진행된 행보다.

#### ◆강서맥주, 내년부터 물량 공급 확대

강서맥주는 마트·편의점에서 판매되에도 쉽게 볼 수 없다. 청와대 공식 만찬주로 한차례 전국민의 관심을 모은 뒤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생산하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세브브로이를 포함해 아직까지 국내 수제맥주 기업들의 매출 및 생산 기반은 넉넉치 않다. 이에 세브브로이는 지난 9월 전라북도 및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투자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익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제맥주 공장을 착공 중에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강맥주, 강서맥주 등 생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라인업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출시를 앞둔 신규 수제맥주와 무알코올 맥주 생산 시설 등을 구축해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시설과 체험시설을 구축해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세브브로이 담당자는 밝혔다.

한편, 강서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세브브로이는 수제맥주 전문기업이다. 2003년 작은 맥주 전문점으로 시작, 맥주 제조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품고 연구와 제조설비에 투자를 시작했다. 2011년 10월 대기업으로 양분된 맥주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는 최초로 맥주 제조 일반면허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내며 탄생한 맥주 기업이다. 세브브로이는 국내 최초로 에일 맥주를 선보였으며, 그동안 라거에 익숙해져 있던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0년 수제맥주 시장 규모가 1000억원을 돌파했다. 전체 맥주 시장의 3% 규모다. 코로나19 이후 주류시장 매출이 상승하면서 소규모에 머물던 다양한 주류들의 매출 상승효과와 함께 수제맥주 시장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오랜시간 소수의 취향으로 분류되던 수제맥주는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과의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 맛과 향, 종류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 수제맥주 시장의 포문을 연 1세대 기업은 곰표밀맥주 제조사로 유명한 '세브브로이맥주(주)'다. 세브브로이가 처음 지역명을 도입해 만든 수제맥주는 바로 서울시 서쪽 지역구명을 딴 '강서맥주'다.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KWBL 휠체어농구리그 오늘 개막... 최초 6개 구단 체제  
▲ 하지만, 빅리그 통산 50홈런 달성... 휴스턴 전 시즌 11호 홈런 /사진 뉴시스

▲ 한국관광공사, 오늘 강원도 등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지훈련단 유치 MOU'  
▲ 호날두, UCL 최다 출전 경기서 '극장골'... 맨유, 비야레알에 2-1 역전승



▲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세계 1위 일주일째...美 매체 "'기생충'과 비슷한 현상"  
▲ BTS, 11월 미국 콘서트 시작...K팝 그룹 월드투어 재개되나 /사진 뉴시스